

- 지면안내
- 02 하반기 대의원 총회 마무리
  - 03 홍보 슬로건 속 '상상력'
  - 04 학벌없는 사회 10년을 되짚어 본다
  - 05 '경술국치 100년' 마지막 기획 연재
  - 08 면접 이미지 메이킹 전략



## 대학평가 논란 속 알맹이 찾기

하반기 들어서면서 국내 여러 신문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대학 평가를 발표했다. 중앙일보에선 학생 충원율 1위, 학생 1인당 도서관입비 3위, 교수당 자체연구비 11위, 외국인 교수비율 19위, 교육중심대학 18위의 성적이었다. 특히 강의평가 결과 공개로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경향신문에서는 대학지속가능지수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우리 대학은 총 149개 대학 중 전체 순위 90위, 경영부문 평가순위에선 전체 114개 대학 중 55위다. 교육은 600점 만점에 323.6점, 연구는 400점 중 196.0점, 진로부문은 300점 중 81.4점, 소통은 200점 중 140점, 편의는 100점 중 70.9점이다.

이와 함께 31위 이하 중하위권 대학 순위의 '인서울' 거품과 실체에 관한 박스기사도 함께 실렸다. '인서울' 대학들 가운데 비교적 이름있는 대학들이 지방 유수 대학들에 비해 순위가 한참 밀렸다. 하지만 취업시장에선 여전히 '인서울'이 강세다. 대학로 근처에 위치해 일명 '인서울'의 메리트를 누리고 있는 우리 대학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심지어 우리 대학은 앞서 언급한 대로 진로부문의 점수가 저조하다. 진로부문은 인턴십, 진학률, 취업률, 국가고시 현황 등을 지표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대학지속가능지수가 경향신문에 발표됐을 때 이러한 대학평가에 대해 반대하는 한 교수의 반론이 실렸고 후에도 논란이 계속 이어졌다. 이런 평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평가결과를 대학의 서열화를 낳을 수도 있지만 날카로운 평가를 통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모든 대학평가를 민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 필요는 없다. 모든 평가가 완벽할 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측정 없이 개선 없다'는 말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각 신문에서 평가한 수치를 가지고 수많은 대학 중 우리는 어느 정도인지 진지하게 가능해 보자. 일명 '부실대학 명단'을 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요즘 세상이다.

이삼미 편집국장



### "밥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지난 9월 15일, 돈암동의 한 식당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중식제공 행사에 정주택 총장이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 넘쳐나는 학생회 행사, 턱없이 부족한 학생 참여 '현무제', 학생 참여 이끌어 내는 것이 과제



인문대는 'A.4.U데이'란 사업으로 인문대학 4개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달 행사를 열고 있다. 예술대는 지난달 예술대 체육대회를 예년과 같이 진행했다. 여기에 각 학과마다 자체적으로 2학기 체육대회도 연다. 학생회가 준비하는 행사는 이렇게 많은데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학생들은 이런 행사를 얼마나 알며 또 얼마나 참여할까.

학생회 주관 행사는 '학생회끼리의 일'이라는 게 학생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운영선무역 2학생은 "과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은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도 모른다"며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남승기(한국어문 3)학생의 경우는 "학생회 인맥이 없으면 과 행사 정보 자체가 학생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다. 몇 개의 자보만으로는 홍보가 부족하다. 행사를 알고 있어도 그들의 무리에 쫓겨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이런 의견에 대해 박미성(행정 3)사 회교과대 회장은 "학생들은 학생회의 점점 멀어

지는데 학생회는 예전과 같은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행사 내용에 관한 회의 자료도 더 공개해야 하고 강의 선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은유민(역사문화 2)인문대 부회장은 단대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부족에 대해 "단과대학의 행사 규모가 작아 종합 주관 행사보다 관심이 적다"며 "이번 인문대 가요제는 가요제 형식의 행사는 처음이라 자리를 잡지 못해서 학생들의 기대심리가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인문대 가요제는 10명이 참가해 기대보다 저조한 참가율을 보였다.

홍보 부족과 함께 늘 비슷한 행사 프로그램도 문제로 지적된다. 양보라미(행정 4)학생은 "대자보 몇 개 정도로는 학생 전체에게 홍보하기 부족하다"고 말하며 "매년 행사에 진행되는 게임도 비슷해서 재미가 없다. 특히 축구, 족구 등이 주를 이루는 체육대회는 여자들이 참여할만한 게 없다. 다양한 경기를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행사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바뀌어 행사 자체가 재미가 없어졌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민(무용 3)학생은 "예대 체육대회는 전체 예대 학생들이 모두 모여 시간을 맞춰 운동회처럼 하면 좋았을 거다. 응원해주는 학생들이 많아야 하는 사람도 힘이 나는데 뛰는 선수와 심판만 있으니 행사가 소극적이다"고 체육대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업무시(경제 2)학생은 "강연 같은 경우 현수막으로 크게 붙여 있어 눈에 확 띄는데 축제나 행사는 잘 안 보인다. 학교 공간이 넓지 않은데도 분산된 공간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 볼 하는지 잘 모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사가 단순히 연례행사의 성격에 그치면 학생들을 끌어오기 힘들다. 행사내용이 알차다면 학생들이 자원이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 시간과 겹치는 시간대도 학생들로 하여금 행사에 참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한다. 조한진(경영 3)학생은 "공부, 아르바이트 등으로 바빠 시간적 여유가 없기도 하고 교수님이 수업

을 빼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하권용(컴공 3)학생은 "수업시간과 겹칠 때도 많은데 특히 야간 학생들의 경우가 그렇다. 게다가 과제가 많으면 자원이 가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 사이에서 목적 없이 '연례행사'가 된 축제가 활기를 띌 수 있을까. 중간고사 이후로 예정된 낙산체전과 현무제가 매년 축제에 시를 해지는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무제는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공과대학 학생회가 공동 추진하는 새로운 가을축제다. 김용주(정통 4)공과대학 회장은 "공대축제와 동연의 융비제를 연합시킨 행사로 무대공연, 퀴즈 등의 미니게임, 주점, 클로버라온지 틀림 파티 등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호철(경영 4)총학생회장은 "1학기 대동제처럼 2학기의 대표적인 축제로 기획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이삼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4일, 우리 대학 '개교 38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성학원 창립 65주년과 한성대학교 개교 3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4일 오전 11시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 날 행사의 테마는 '따뜻한 이웃의 정'으로 학교에선 '이웃과 함께하는 개교기념일'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삼산동 자체단체 지원 독거노인 및 봉사단체 비둘기 가족 등을 초청한다. 한성학원 이사장, 한성대학교 총장, 한성여중·고 교장, 법인이사, 본교 퇴직 교직원 등이 내·외빈 귀빈으로

초청된 기념행사에는 초청자 축하, 장기근속자 포상 및 대학발전기금 감사패 수여식 등이 진행된다. 최민이(기획협력팀)팀원은 "올해는 이희순 이사장이 33년 만에 학원으로 복귀해 제 2의 개교를 선언한 해"라며 "시상과 축하를 진행하고 끝내던 기존 개교기념 행사보다 특별한 행사로 만들고자 했다"고 전했다.

행사장 로비에선 한성학원 65주년 기념우표를 전시·판매한다. 기념우표는 김지현(미디어 디자인전트츠학부) 교수가 도안을 했으며 홍보

회과 기본형으로 나누어 판매된다. 행사 이후 우리학교 우편취급소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행사의 서브 이벤트로 기념 떡 배부 및 '우리 한성 이야기' 사진전도 진행된다. 당일 정문 및 중문을 통해 등교하는 재학생과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행사 기념 떡을 나누어주며 한성대 지식창고 메뉴를 통해 공모 받은 학교를 배경으로 한 각종 사진들도 전시하며 우수작을 선정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

##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개교기념일 테마로 진행

장 입학 시 행운권을 배부, 추첨을 통해 휴대폰 갤럭시 S10대를 증정한다. 행사장 퇴장 시엔 식권(학생용) 및 참가기념품(USB 4G)을 배부한다. 학교 측은 "2010년은 한성학원 창립 65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라며 "학내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념사업을 통해 한성학원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화합·단결·변화의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취재부

## 2010 제25회 한성문학상 현상 공모

참가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모집부문 :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5면 이상)

주 제 : 자유

마 감 일 : 11월 10일(수)

발 표 일 : 12월 6일(월)

수상자 발표와 수상작은 12월 6일에 발행하는 한성대신문 445호에 게재

상 금 : 단편소설 60만원 및 상패

시 40만원 및 상패

제출 장소 : 학생회관 제1별관(우편취급소 건물) 2층 한성대신문사

문 의 : 02)760-4186, press@hansung.ac.kr

기 타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원고 글꼴에 한성문학상 응모모집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소속, 연락처 기재 필)

한 성 대 신 문 사

# 하반기 대의원총회 마무리

### 30일 동아리연합회 · 사회과학대 · 공과대학 · 현무제 예산안 인준

지난달 17일 처음 열린 하반기 대의원 총회가 30일을 끝으로 모든 인준 및 안건을 마무리 지었다. 17일 하반기 1차 대의원 총회에선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인문대, 예술대의 예산 인준과 상반기 정기 감사결과 보고, 하반기 각 단위 조직도 심의가 진행됐다.

30일 하반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선 감사위원회, 사회과학대, 공과대학, 동아리 연합회, 현무제, 총학생회 예산안 변경이 인준됐다.

**2학기 공개기구 및 단체 예산기획안 모두 인준**

총학생회 총 예산은 1천2백13만3천1천원으로 111명 중 97표를 얻어 인준됐다. 졸업준비위원회는 취업준비 지원 및 2학기 앨범 촬영시 소요되는 부대비용, 일상 운영비가 포함된 3백7만원의 예산을 인준 받았다(113명

중 102명 찬성). 학생복지위원회는 금연캠페인, 시험기간 간식배부, 씨네마 데이, 한가위 귀향버스 등의 사업으로 책정된 5백1만7천원의 예산을 인준 받았다(113명 중 74명 찬성). 인문대는 3백6십3만7천원(122명 중 85명 찬성), 예술대는 체육대회, 아식지원, 우수소모임 지원 등으로 3백3십6만5천원의 예산을 인준받았다(124명 중 75명).

동아리연합회와 사회과학대학은 사업 계획서의 내용 불충분으로 1차 총회 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30일 하반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각각 65만원, 3백2십9만8천원의 예산을 인준받았다. 1차 대의원 총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된 공과대학도 이날 1백7십1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하반기 총대의장 시화로 인한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총대의원회는 심세용(산시 4) 총대의장이 개인사정으로 9월 초에 사퇴함에 따라 고재훈(정통 4)부의장이 총대의원회 의장을 위임했다는 인건을 보고했다. 의장직을 위임받은 고재훈 부의장은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학생회칙 제 9장 제 51조에 의거해 총대의장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0 '상반기 정기감사결과 보고**

또 하계 방중 기간에 진행된 1학기 예산에 대한 회계 감사 및 사업과 공약 감사결과가 보고됐다. 예술대학 학생회와 공과대학 학생회는 회계감사 분야에서 각각 경고 3회와 주의 1회, 경고3회를 받았다. 이에 예술대학은 단위예산의 1%인 5만4천500원을, 공



▲ 지난달 17일 열린 하반기 1차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의결안에 대한 거수를 하고 있다.

과대학은 2만4천1백8십4원을 환불했다. 총학생회는 회계감사 분야에 경고와 주의 1회를 받았고 사회과학대학은 회계감사 분야 경고 1회, 사업·공약 감사 분야에 1회, 주의 1회를 받았다. 졸업준비위원회와 학생복지위원회는 회계감사 분야에서 각각 경고와 주의 1회를 받았고 동아리연합회는 사업·공약 감사 분야에 경고 1회를 받았다. 총대의원회, 인문대학 학생회

는 특별히 조치된 내용이 없다.

**2010 '현무제 예산 인준**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공과대학이 추진위원회로 참여한 2학기 축제 현무제의 예산 1천2백5만7백5십원이 88명 중 70명 인준으로 통과됐다. 현무제는 중간고사 이후로 예정되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학생 대상 강연 어떻게 해야 참여 이끌까

### 강연주제 · 강사 인지도 · 수업시간 등 고려

지난해 29일, 구성애의 성희롱 · 성폭력예방 강연회가 낙산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올바른 성문화와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이날 강연에는 약 30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전현수(경제 3)학생은 강연이 끝나고 "낙산관 앞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왔다.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듣는 학생들이 적어 아쉽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교내에서 열리는 각종 강연에 참석하는 동기는 무엇일까. 다양하고 흥미로운 강연 주제와 내용이 단연 우선 순위이다. 강연 자체의 '재미'도 중요하다.

이은정(무용 4)학생은 "강연이 인문학에 관한 주제가 많고 기대를 위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사람의 강연을 제록하면 듣고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또 "연예인이나 유명인 성공담, 정신적 치료특강이나 웃음치료 등 가벼운 강연을 수 있는 특강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학과와 한 학생은 "몇 해 전 사 송토론의 과제"를 주제로 손석희 교수를 초청한 강연회, 한비아 월드컵 전 긴급구호집회를 초청한 학습정보관의 '저자와의 만남' 등은 참여율이 높았다.

회화대에서 열린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탄탄하게 짜인 강연이 아니라 급조된 느낌이 강했으며 수업을 듣는 것처럼 딱딱했다. 일부 강연에 국한된 문제였지만 좀 더 철저하게 구성된 강연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승기(한국어문 2)학생은 "작년에 있었던 심상철 강사의 성공학과 관련된 강연을 재미있게 들은 기억이 난다. 또 그런 강연이 있다면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지혜(무역 2)학생은 "평소 학교에서 하는 강연에 관심이 많아 자주 참석하는 편이다. 이번 구성애 강사의 강연은 2시간동안 유익할뿐만 아니라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강의와 겹치지 않는 적절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사람의 강연을 제록하면 듣고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또 "연예인이나 유명인 성공담, 정신적 치료특강이나 웃음치료 등 가벼운 강연을 수 있는 특강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학과와 한 학생은 "몇 해 전 사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외국인 학생의 언어문제 심각

### "수업의 30% 이해하고 있어요"

요즘 학교 곳곳에서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낯선 유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학부 수업에서도 이들의 이름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올해 학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총 143명으로 73명이었던 작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다.

외국인 학생의 수는 많이 늘었지만 정작 이들은 부족한 한국어구사능력으로 인해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입학하

기 위해선 4년제 대학교에서 언어교육원 수업 후 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한 학생이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국어능력시험 기준에 따르면 1~6급 중에서 5급 이상이 돼야 전문분야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출신의 서열비(한국어문 3)학생은 "한성대에서 첫 학기를 보내면서 한국어능력시험 5급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 학생들과 같은 전공수업을 듣고 있는데 전문적 어휘가 등장하는 수업은 수업 내용의 70%를 따라가지 못해 걱정이 많다"며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 할 때

는 큰 문제가 없는데 수업관련 어휘는 어렵다. 수업뿐 아니라 발표와 과제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 전공 수업 중 한자를 발견할 때 그때나마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조혜교(매디 2)학생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전문용어나 외국어로 된 패선용어의 20%정도 밖에 이해할 수 없어 늘 사전을 끼고 단어를 검색하고 있다"며 "학기의 반 이상이 지나야 그 제사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국호(행정 3)학생의 경우, 개인적인 노력으로 한국어능력을 향상시켰다. "첫 학기때는 수업의 30%밖에 이해할 수 없어 굉장히 힘들었다. 하지만 두 학기라는 기간이 지난 지금은 70%정도 이해할 수 있다"며 "한국어 공부할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교 동아리에 참가해 친구들을 사귀며 어휘력을 향상시켰다"고 이야기했다.

외국인 학생들의 언어문제에 대해 김지현(대외협력팀) 과장은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부 수업과 언어교육원의 한국어 수업을 병행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양과목으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학생의 언어 문제는 학사지원팀과 협의해 외국인 학생으로만 구성된 교양강좌를 만드는 등 더 많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yel11@hansung.ac.kr

# 4일부터 공과대학 취업아카데미 열려

역설 경진대회	JAVA 어어 경진대회	파이썬/모인드 경진대회	C언어 경진대회	임사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경진대회 날짜	10/4 10:00~12:00 (경기 공8동 411호)	10/5 10:00~12:00 (영포, 공8동 305호)	10/4 14:00~16:00 (영포, 미래관 DL1)	10/5 14:00~16:00 (경기 공8동 215호)
시상내역	시상:10명(8명)권	시상:10명(8명)권	시상:10명(8명)권	시상:10명(8명)권
상금	대상:1명(300,000원) 최우수상:2명(200,000원) 우수상:4명(100,000원) 장려상:10명(이하 50,000원)	대상:1명(300,000원) 최우수상:2명(200,000원) 우수상:4명(100,000원) 장려상:10명(이하 50,000원)	대상:1명(300,000원) 최우수상:2명(200,000원) 우수상:4명(100,000원) 장려상:10명(이하 50,000원)	대상:1명(300,000원) 최우수상:2명(200,000원) 우수상:4명(100,000원) 장려상:10명(이하 50,000원)

4일부터 이틀간 공과대학(이하 공대) 취업아카데미가 진행된다. 이번 취업 아카데미는 엑셀, JAVA언어, 입사 포트폴리오, 파워포인트, C언어 등 공대 각 과가 하나의 품목을 담당하는 경진대회 형식으로 열린다. 5일 개교 기념일에도 심숙실을 개방해 예정대로 대회를 진행하며 수업과 결철 시

아간 시간대로 바꿔 들을 수 있다. 정병용(산업경영공학과)공과대학장은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제작한 프로그램 등을 직접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총장 명의의 상장이 발급되며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취재부

# 학내언론사 주최 공모대회 열린다

현재, 학내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창작물 공모 대회가 모집기간에 있다. 한성대신문사에서는 소설과 시로 제25회 한성문학상을 현상공모한다. 이상미(매디 2) 편집국장은 "문학 창작에 관심있는 학생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한성문학상의 대를 이어갈 좋은 작품을 많이 응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12회 한성교내 영어수필대회를 주최하는 한성대 영자신문사 이민영(영어영문 2) 편집국장은 "영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수필대회에 참가해 자신의 영어실력을 점검하고, 심사를 통해 자신의 수준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일 것"이라고 영어수필대회를 소개했다.

제4회 한성사랑영상공모전을 준비한 김다은(기계 2) 한성대 방송국장은 영상공모전에 대해 "자신만의 이야기로 나만의 색깔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놓치지 말라"며 많은 참여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각각의 수상작은 445호 한성대신문, 100호 'Hansung Today', 11월 18일에 열리는 방송제에서 발표된다. 임종석(멀티미디어공학과) 프레스센터장은 "학내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잘 이용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공유희 기자 gong0930@hansung.ac.kr



▲ 29일 낙산관 소강당에서 열린 강연,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

## 동정란

**김창홍(한국어문학부)교수**  
김교수는 도서출판 태학사에서 『한국 노예문학의 의혹과 진실』이라는 논저를 출간하였다. 『한국 노예문학의 의혹과 진실』은 가야 수로왕 관련 '구지가'를 비롯해 신라의 향가 2편, 고려가요 2편에 대한 관점의 변곡을 낚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호영(한국어문학부)교수**  
박교수는 한국 근대시인들의 낭만주의에 대한 영향과 그의 의의를 정리한 저서 『한국근대기 낭만주의 전개연구』(박문사)를 출간했다.

**김상봉(경제학과)교수**  
김교수는 지난 9월 20일자로 『신용카드의 이해』(정목출판사)를 출간했다.

**황진수(행정학과)교수**  
황교수는 지난 9월 15일자로 노인복지 관련 전문서적 『노인복지론』(양서원)을 출간했다.

## 문화교실 25강

# 마르틴 루터의 개혁, 그 현장을 찾아서

발표자 : 박준철(역사문화학부 교수)

일시 : 2010년 10월 7일(목) 오후 3시

장소 : 미래관 ELC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 홍보 슬로건 속 '상상력', 마음대로 상상해라?

## '상상력'에 대한 학내구성원의 이해 먼저 있어야



학교 정문 앞 미래관 외벽과 해화역 4번 출구를 통해 학생을 모달로 한 대형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외부에서 학교로 전화를 걸면 '상상력'이 들 어간 인사 멘트가 흘러나온다. 우리 대학은 '상상력'이라는 홍보 슬로건과 엠블럼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교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상력이 무슨 뜻인지 학내 구성원조차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상상력'을 슬로건으로 학교 광고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이다. 한 광고회사의 아이디어로 처음 탄생한 슬로건은 '도심 속 상상력 CT'로 여기에서 '상상력'은 우리 학교의 교육목표, 'CT'는 문화산업기술(Culture Technology)을 의미한다. 김지현(대외협력팀)과장은 "문화산업기술은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하며 영화, 음악, 방송,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산업을 포함해 인문사회학, 디자인,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기술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에서 상상력에 관련한 교육 및 프로그램으로는 다른 대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교육훈련지원금과 디즈니 인턴십 등이 있다. 당시 학교 홍보에 대해 논의한 교수중심홍보위원회에 참여한 김정우(한국어문학부)교수는 "상상력 슬로건은 교육중심의 학교 성격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학 광고의 3대 타겟(입시생 및 학부모, 교직원 및 재학생, 기업)을 모두 겨냥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정우 교수는 "광고에서 '대학'이란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주력해

야 하는 상품이다. 학교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선 학교의 규모, 오랜 역사, 좋은 교육 프로그램 등 학교의

장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교육중심 대학'이란 타이틀 내세우고 있다. 학부 4년간 효과적으로 교육해 학생을 졸업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는 의미다. 학생들의 비전과 상상력을 학교가 교육시스템으로 밝혀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실제 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은 학교 교육에서 얼마나 '상상력'을 실현시킬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좋지 못하다. 신지연(정보통신 4) 학생은 "현재 교육과정과 상상력은 거리가 멀다고 본다. 상상력이란 홍보 문구가 실제 학교 교육과정과 시스템에서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디즈니 인턴십의 경우 특정 학과 학생만

혜택을 받을 뿐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명선(부동산 3)학생은 "상상력은 하나의 주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봄으로써 기존의 틀과 는 다른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학교는 이론을 심도 있게 배우는 것은 만족스럽지만 그 이론은 다른 것과 접목하는 교육은 다소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이론을 다른 것에 접목시키는 상상력은 다소 부족”

“학교가 이런 점을 채워준다면 슬로건에 맞는 교육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연 학생은 "수업 자체에서 상상력을 키워줄 순 없다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 학교 홍보 슬로건이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은 홍보문구로 쓰이는 단어가 추상적인

이미지인데다 광고 지속성이 떨어지는 점에 있다. '상상력홍보'이란 슬로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입시철 외엔 특별히 광고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는 점도 아쉽다.

대학로에 위치한 우리학교 에듀센터 근처에서 인터뷰에 응한 한 시민은 "광고를 보았을 때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았다. 인지하기 쉽지만 모호한 표현이라 말하고자 하는 '상상력'이 학생들과 무슨 관계인지 선뜻 느껴지지 않는다"며 "상상력에 한자의 음을 넣어 한 번에 뜻을 표현하는 식으로 가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비슷한 의도로 학교 광고를 제시한 대학이 몇 군데 있다. 숙명여대의 경우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을 광고 컨셉으로 여대란 핸디캡을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시켰다. 요즘엔 학교 장기발전 전략에 맞춘 불투명한 프로젝트를 홍보 중이다. 덕성여대는 '나의 브랜드 발전소'란 주제로 학교의 교육적 브랜드를 광고에서 강조해 효과를 거뒀다.

김정우(한국어문학부)교수는 "지속적인 광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 광고 카피에는 '상상력은 A다'는 식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코너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교원학생 생생 정보통

## 영어를 대하는 중국 대학생, 우리와 달라

-편집자 주-

한성대신문에서는 이번 학기 동안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나가 있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보내오는 생생한 교환학생 수기를 실습니다. 앞서 두 차례 심린 뉴질랜드의 Unitec 교환학생에 이어 이번호와 443호에는 중국 북경의 화북전력대학 교환학생 수기가 실리며, 444호와 445호에는 미국 뉴욕의 Montclair State University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글이 실립니다.



오전 6시, 가끔 일찍 눈을 뜨면 학교 운동장에 조깅을 하러 나간다. 운동장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침을 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있으니, 바로 '영어책' 낭독이다.

중국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공통점은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 대학교 졸업 요건 중 일정 수준의 영어 성적을 요구한다는 것. 각 대학교마다 필수과정으로 영어과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또한 모든 학생이 영어가 정말 좋아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영

어를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나 편의점 다음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영어학원인 만큼 학원도 많고 과외나 스테디도 많이 있지만 중국에는 우리나라만큼 학원이나 과외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설명 있다 하더라도 학원 수강료는 중국의 일반 대학생들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기에 서박사 준비생이나 외국유학, 부유한 집 가정의 자녀 외에는 선호하지 않는다. 대신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강의를 수강하거나 외국인 친구를 찾아서 서로 언어교환도 하고, 내가 본 광경처럼 사람이 적고 비교적 조용한 곳에 가서 영어책을 낭독하는 방법 등 우리나라 학생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취업을 준비할 때 예도 물론 영어 공인성적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리나라 학생들과 같이 영어 성적이 좋은 직장을 구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학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

년 때부터 석박사과정을 상담 받는다고 하니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또 경력이나 직장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학교 자체에서 특히, 공과계열이나 이과계열은 수업마다 많은 실습이 있으며 한 학기 전체를 특정기업이나 회사에 실습을 나가는 실습 학기도 있다.

지속실에서 공부하는 책이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학생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개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 준비나, 각 전공의 해당 자격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은 거의 만나 본 적이 없다. 중국의 대학교는 한국의 고등학교와 비슷하게 강의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 중 과제할 시간조차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방학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학교에 남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기 공부를 한다.

강경민(기계 3)

### 한성 정보 홍신소

## 학교가 아파트 단지에 묻히는 건 아닐까요?

Q: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학교 주변이 재개발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 학교 주변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산미리(의대 2)학생의 질문은 5구역에 대한 재개발 조항이 얼마 전 법인으로 인정받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산미리 5구역(우리 학교 정문 및 중문 앞 지역 등 오른쪽 그림 테두리 안쪽 부분) 재개발 조항이 법인으로 인정받고 얼마 전 주민총회에서 사업자가 대우건설로 선정되는 등 재개발 진행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 본격화되면 우리학교 진입로 초입 확장 공사도 탄력을 받게 된다. 현재는 한성대 삼거리 부근 일부의 진입로만 확장됐는데 재개발이 시작되면 정문 앞 진입로 확장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그러나 학교 부지 자체의 면적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는 미미하다. 중문 부근 주택가 건물 부지엔 아파트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도영(시설지원팀)팀원은 "학교 주변이 넓어진다고 장담할 순 없다. 기업은행 및 기숙사, 우편취급소 건물 등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조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아파트는 많아지겠지만 기존보다 주변 환경은 더 쾌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재개발 조항이 사업시행 계획 수립 단계에 이르렀지만 실제로 주변 건물을 헐고 다른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은 빨라야 2년 후 예나 가능하다.

취재부

# 세상이 있다! 꿈이 있다!

## 제 3회 한성대 영상제가 개최됩니다. (구. 한성대 동영상문화제)

일시 : 2010년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미래관 지하 D.L.C

주최 :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주제 : 자유공모

대상 : 한성대 재(휴)학생

작품형식 :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UCC 등

런닝타임 : 10분 내외

출품포맷 : DVD 혹은 avi, mpeg, wmv 등의 파일

출품장소 : 우촌관 509호 교양학부 사무실

출품마감 : 2010년 11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제출서류 :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쇄 후 작품과 함께 제출

\* 수상자에게 소정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집니다.

재능있는 한성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학벌주의에서 벗어날 그 날을 꿈꾸다

## 한계도 많지만 여전히 개선될 희망은 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학벌없는사회'는 학벌주의 사회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2000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학벌중심사회를 타파하기 위해 월례토론회, 천만씨앗, 독서모임, 학교 밖 배움터, 출판·편집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현정(학벌없는사회) 운영위원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학교 밖 배움터 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다. 대학 입시제도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진아 학생과 속칭 문제아 학생들을 위해 인문학강좌를 열기도 하고 다양한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며 줄 세우기식 대학 입시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벌없는사회'는 올해 출판·편집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를 버리고 시장을 떠나라'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현정 운영위원은 "책이 다소 딱딱하고 이론적이다. 대중들이 선뜻 읽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학벌사회와 관련한 집지를 기획하고 있다. 필진을 섭외하고 있고, 독자투고도 받을 예정이다."며 학벌사회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출판사업 현황을 전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천만씨앗이라는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 학벌사회에 대한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홍보물을 나누어주는 것의 효과가 미미할지는 모르나 홍보를 하나하나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뿌린다. 수백, 수천 개의 씨앗



▲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29일까지 학교밖 배움터 사업의 일환으로 성남에서 학교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문학교실 '살은 달걀'이 열렸다. 현재 '살은 달걀'은 3기가 진행중이며, 이 사진은 성남에서 열린 1기 디딤돌학교의 8강 수업 후 모습이다.

를 뿌리다 보면 그 중 몇몇이 싹트고 또 그 싹들이 자라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길 기대하면서 활동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설명했다.

'학벌없는사회'의 이런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줄 세우기식 대학 입시제도는 당장 개선되기 힘들어 보인다. '학벌없는사회'가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대학평준화문제는 학벌사회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닌 사람들조차도 쉽게 동의하고 지지하지 못하는 힘든 과제이다. 게다가 대학평준화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학입시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경우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들어가길 바라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학진학이 장차 먹고사는 문제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보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현정 운영위원은 "우리 단체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대학평준화이다. 모든 대학을 평준화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공립대부터 통제할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목표를 좀 더 현실에 맞게 수정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작은 시민단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있어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학벌없는사회'가 출범한 지난 10년간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거둔 성과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운동진영에서 학벌사회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주제로, 의제로 반영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다. 학벌주의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학벌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늘었다. 10년 전만 해도 학벌이 뭐냐고 묻

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문제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업을 하면서 희망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학벌사회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200명 이상 되는 회원들이 꾸준히 회비를 입금해주고 있는 만큼 문제에 공감하고, 일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힘이 난다."며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그는 "큰 줄기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교육의 새로운 전광과 틀을 제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잠재적인 수요가 많은 학교 밖 배움터 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생각이다. 또 학벌사회의 문제점을 더 알리고, 문제의식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통로나 마련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학벌없는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질문에 이현정 운영위원은 "학생들이 자신이 지닌 문제의식을 걸음으로 표출하는 것보다 스펙쌓기에 열중하는 만큼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대학생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의식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의식있는 행동은 미디어 등에서 학벌중심사회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학벌중심사회가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하며 "학생 스스로가 출신학교에 대한 열등감 등 학벌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달 6일 여성인권영화제 개막해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



여성폭력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시작된 여성인권영화제 '피움'이 이달 6일부터 3일간 씨네코드 선재에서 열린다. 2006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왔던 여성인권영화제가 2008년 이후 2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전히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일상과 투쟁의 나날들', '그대 마을과 만나, 피움' 등의 세 가지의 테마를 구성해 여성폭력과 인권의 문제를 영화와 함께 천천히 풀어간다.

'한국여성영화'란 회(인권정책팀)국장은 "각각의 테마는 국내외의 다양한 여성폭력의 현실을 다룬 영화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며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사건들은 아주 일부분이다. 실제로는 여성폭력과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피움 좀 인', '피움 좀 아웃'이라는 여성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코너를 신설했다. '피움'이 '좀 인'이라는 주제는 '낙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4편의 영화를 상영하는데 낙태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해결법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피움 토크'이라는 코너로 영화를 제작한 감독과 전문 인권 활동가가 영화를 본 소감을 나눈다.

이번 행사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사망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공간인 '멈춘 그녀의 신발, 추모연문'은 중요한 부대행사이다.

한 회 국장은 "연일 기사로 쏟아지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사망소식에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단순한 가슴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닐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외면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가슴이 아프다"며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며 나누는 이야기들과 함께 부담없이 와서 여성인권에 대한 마음을 조그만 변화를 안고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예진기자 odory11@hansung.ac.kr

### 통계로 본 한국사회

## 대학생 53%, "기회가 된다면 전공을 바꾸고 싶다"

작년 4월 알바천국(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에서 시행한 '희망직업과 전공의 일치 여부'에 대해 '일치한다'는 58.6%, '일치하지 않는다'는 41.4%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전공을 바꾸고 싶다'는 설문에 약 53%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전공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견은 의학적계, 교육, 상경계열 등 전문직과 관련된 전공일수록 응답자가 많았다.

많은 대학생들이 수능성적에 따라 의지와 무관한 학교, 학과를 진학하면서 그 후,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뒤늦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수도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55.66%의 학생이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답한 결과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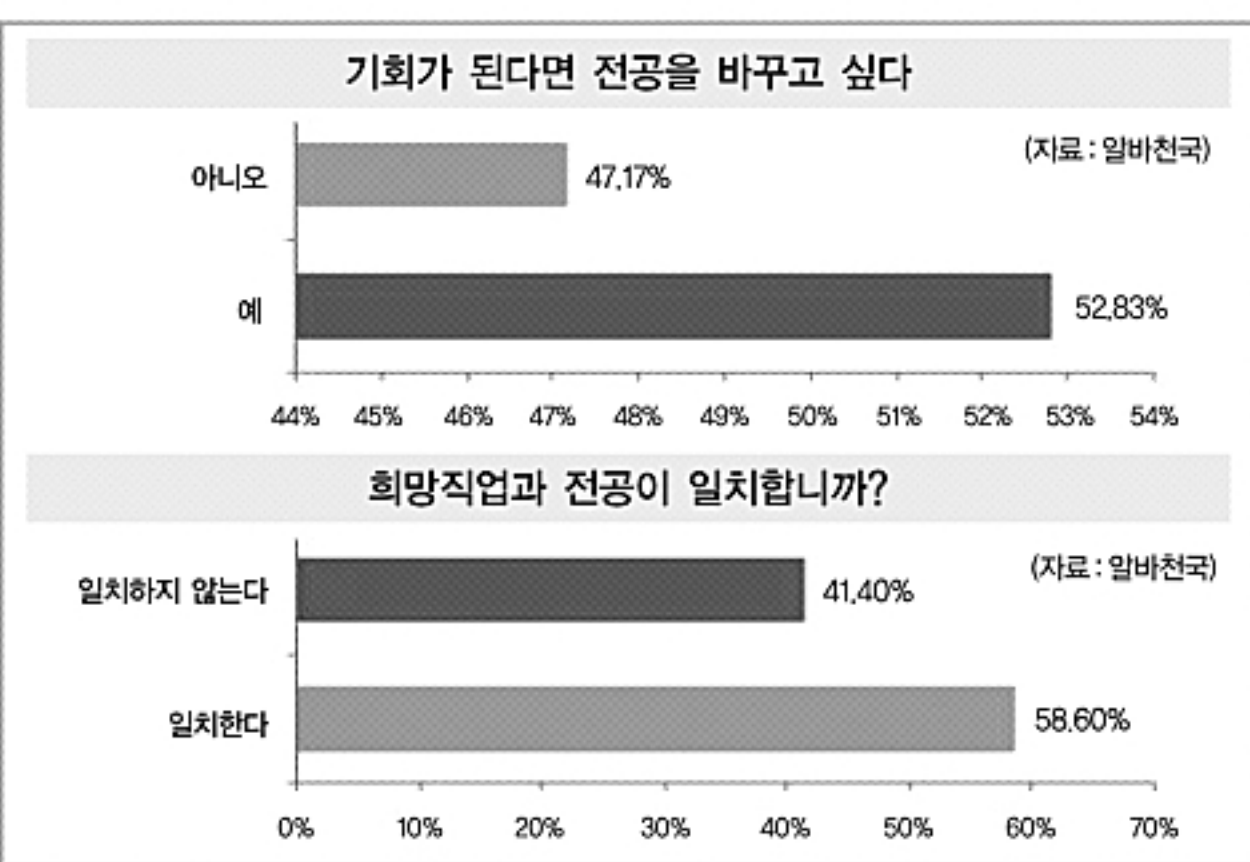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은 우리학교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김상돈(정통 2)학생은 "수능 점수에

맞춰 학교를 진학했기 때문에 지금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며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차근차근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석호(정시 2)학생은 "타 학교와 비교해 학과의 경쟁력이 다소 낮은 건 사실이라"며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따로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조백상(기계 2)학생은 "수학과로 진학하고 싶었다. 현재는 이과계열이지만 수학을 좀 더 심도있게 다루지 못해서 아쉽다"며 "관련 공부를 개인적으로 더 할 생각이라"고 전공과 희망하는 공부가 일치하지 않음을 이야기했다.

이처럼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종과 전공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전공의 만족도가 취업 여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며 "학생들은 다양한 자질과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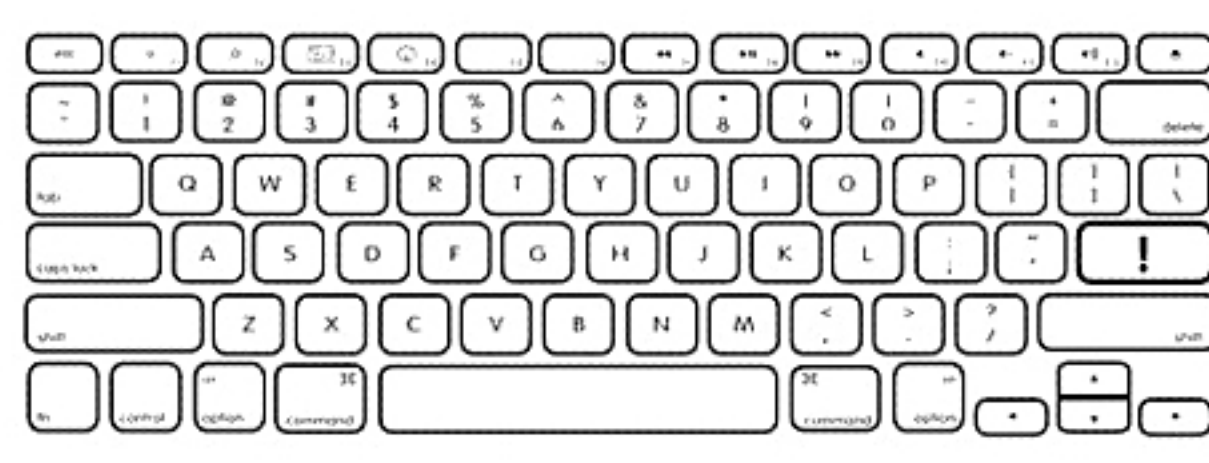


정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졸 취업난 해소



# 제 4회 한성사랑 영상 공모전

## Hansung-Sarang FilmFestival



Where is Your "Enter"?  
And Where is Our "Enter"?  
Please find the "Enter" to be able to Know you and us

주제 : Enter  
참가자격 : 전국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  
참가부문 : 다큐멘터리/비 다큐멘터리  
제출기한 : 2010년 10월 25일 ~ 2010년 11월 6일  
상금 : 최우수상 - 부문 구분 없이 한 팀 또는 한 명(상금 50만원)  
우수상 - 부문별로 한 팀씩 총 두 팀(상금 20만원)  
한성대학교 방송국 문의전화 : 02-760-4184  
주최 : 한성대학교 방송국 후원 : 한성프레스센터

# 36년간 연인원 780만 명 병력·비병력 강제동원

## 미래 100년, 전쟁 피해자 없는 동아시아 위해

올해는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0월에는 건너오 일본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자랑스러운 역사도 아니지만 잊지도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 중 일부인 경술국치를 여러 시각에서 알아보려 한다.

① 한일합방의 부당성 ② 불법 반출된 고문헌과 반원문화재 ③ 일제강점기의 피해 보상

경복궁을 딱하니 가리고 선 조선총독부 건물들 쪽파해도, 백두대간 곳곳에 박힌 철심을 빼낸다 해도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픈 역사가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살았던, 우리 말과 역사를 빼앗기고 황국신민으로 살아야 했던 36년이다.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는데, 노예의 나날이었다. 연인원 780만 명의 동포들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강제동원되었던 시절이기도 했다.

전후 일본 사회가 부정하고 싶었던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1965년 재일 사학자 박경식의 저작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 후 후학들의 연구 및 한국 정부(대일합방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회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강제동원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의 제정 공포 이후 1945년 종전(終戰)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당국이 전쟁수행을 위해 일본과 조선 등 지역에서 시행한 인력동원 정책이다.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본 본토와 일본의 식민지는 물론이고, 점령지역 등 일본의 '제국' 전역에 대해서도 실시했다. 일본공문서에 의하면, 강제동원 되는 조선인에 대한 용어도 물자공출(物資供出)과 마찬가지로 '공출'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전쟁수행을 위한 인력동원의 필요성을 느낀 일본 당국은 각종 통제법령을 통해 조선인 동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이후 1938년 2월 22일 칙령 제95호 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 1938년 5월 5일 국가총동원법의 적용(4.1 공포)과 1939년 7월 국민징용령 공포, 1939년 7월 28일자 내무성·후생성의 '조선인노무자 내지이주에 관한 건'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인력동원 정책을 실시했다.

동원 지역은 일본, 중국 관내, 남사할린, 만주,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등지고, 규모는 연인원 총 780만 명(성동원 피해자, 만주지역 노무자, 원폭피해 등 제외)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을 동원하는 주체는 일본 내무성·후생성을 비롯하여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 등 주요 통치 주체가 해당된다.

인력동원의 종류는 크게 병력(지원병, 징병)과 비병력(노무동원: 군속, 근로정신대 포함), 성동원(일본군위안부, 노무위안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병력 동원은 일본이 침략전쟁의 수행을 목적으로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령 육·해군의 1보충역 등으로 동원한 일체를 총칭한다. 육군특별지원병, 해군특별지원병, 학도지원병, 소년지원병, 해군징모병, 징병이 이에 해당한다.

비병력은 국가총동원법(1938.4. 공포)에 의거해 정책적·조직적·집단적·폭력적으로 동원된 각종 산업의 민간 노무인력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징용령에 의거한 피징용자(노무자, 군속)와 모집, 관할선, 근로보국대 등 법령에 의거해 동원된 인력으로 이입

노무자, 농업이민자, 여자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와 군속이 해당한다. 군인 1명당 12~13명의 비병력이 필요했으므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 일본 정부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지역으로 간 인원만 해도 60~8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했고, 비인격적인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었으며, 파견현장과 귀국과정에서 30만 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본토에 동원된 경우, 공습과 원폭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원폭에 대해서는 일부 알려져 있으나 총 10만 명의 사망자 가운데 1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 사망자가 발생한 1945년 3월 10일 도쿄 대공습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8월,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인도적' 차원의 노력을 언급했다. 그런데 왜 인도적인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일본이 왜 '인도'를 내세워 주변국에 준 아픔과 고통을 덮으려 하는가? 일본이 한반도 침략의 합법성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당사자인 일본은 '인도'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일이 아니고 사죄와 반성만으로 끝날 일도 아니다. 일본은 먼저 자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과거'를 알리는 일부터 해야 한다. 역사교과육을 통해 일본의 국가권력이 과거에 주변국에 무엇을 했는지 알리는 것이다. 또 동아시아의 민주화가 정착되도록, 전후 독재와 아만의 시절을 보내야 했던 동아시아 민중들이 민주화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가 정착되고, 더 이상 전쟁 피해자가 없는 동아



▲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최대영역도

시아를 만드는 일이 바로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오늘날 일본이 실천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피해당사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을까. 먼저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아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의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이미 입법운동을 통해 2004년에 위원회를 설치해 평화와 화해의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피해당사자가 먼저 가해자 일본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틀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어렵게 만든 틀이 더 단단해져서 큰 건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일이 두 번째로 한국 사회가 할 일이다. 세 번째 역할은 우리 스스로 반전과 평화의 주체가 되는 일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6.25전쟁(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이라크 전쟁 등 크고 작은 전쟁에 휘말려야 했고, 그로 인해 많은 민간인과 여성, 아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았다. 또 다른 우리의 역할은 전쟁 범죄가 없는, 전쟁 희생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일이다. 평화단체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평화운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가능한 일도 없지 않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소수자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일이다.

정혜경 대일합방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회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2과장

### 동양화 스토리

## 고요함 속의 또 다른 세상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도판이미지

강희안,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 종이에 수묵, 23.4x15.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양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유·불·선은 동양의 종교와 사상의 결합체이며 동양인이 가진 자연관의 구현체(具體體)로서 특히 일반회화에 있어서는 유교와 동양사상이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유교는 전체주의적이며 개인을 어떤 틀 속에 억압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은 이것을 초탈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도가적 사상, 특히 노장사상에서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적 배경 아래서 일찍부터 산수화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산수화는 산수에 몸을 담고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 매어 있는 사람에게도 그 것을 봄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자연 속을 여행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해 준다.

문인들은 자기의 작품에 자신의 정신이 올바르게 배어나도록 신경을 썼고, 사실적 묘사보다는 사의적 표현에 보다 더 주력했다. 이처럼 문인이 사의적 경향의 그림을 그렸을 때 그의 작품이 내뿜는 기(氣)나 분위기를 '문기(文氣)·문자향(文字香)·서권기(書卷氣)'라고 부른다.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는 그 타당함이 크다고 하겠다.

강희안(姜希顔)은 조선 초기의 가장 대표적인 선비 화가로 시·서·화에 모두 뛰어났으며 <고사관수도>는 비록 소품이지만 그의 명성을 실감케 해주는 빼어난 작품이다. 주변의 경관은 매우 간소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형식은 소경산수인물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군더더기를 떨어버린 듯 정제된 선비의 모습은 마치 세상을 초탈한 수도자와 같이 세상 밖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의 공간으로 확장시켜주는 듯하다.

바위 위에 턱을 킌 채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겨 있는 고사(高士)의 모습이 덩굴줄 드리워진 암벽 아래서 화면의 초점을 이루고 있다. 벽선으로 그은 나무 덩굴 가운데 옆에서 짙게 북쳐 울린 희이나 끝부분에서 허공을 슬쩍 그어낸 획을 보면 실랑실랑 바람이 이는 듯하다. 주제의 핵심을 이루는 고사의 초탈한 자태는 무성한 세상사를 피해 자연 속에서 심성을 양성하고자 했던 당시 선비들의 고아한 풍모를 보는 듯하다. 서예적 필획이 느껴지는 옷 주름선의 힘찬 필치와 고사의 깊은 정관의 경지를 활달하고 참운한 묵기가 승화시키고 있으며 능숙한 필획의 구사와 공간 활용이 탁월한 구도는 그의 기량과 재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우리의 옛 선비들은 관내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강과 계곡에서 풍류를 즐겼다. <고사관수도>는 풍류의 격을 넘어 선비의 상념에 잠긴 듯 도하고 그저 무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의식만은 분명히 깨어 보인다. 멍은 듯하지만, 보이지 않는 생동의 기운은 다시 선비의 고요한 상념 속에서 환생하는 듯하다.

세상에 풀 만큼 천성적으로 침묵을 좋아하는 것은 없다. 풀은 태초에 놓인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저 바위를 덮은 선비의 시선을 보면 그 역시 성품이 바뀌어 립 선비 또한 오랜 공부와 수양을 통해서 올바른 도를 한 몸에 모으고 있음직하다.(오주석)

바쁘게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고사관수도>는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게 하고 마음으로 자연의 이치를 더듬어 삶의 건강한 지혜를 주는 생명력 넘치는 작품이라 하겠다.

이근우 / 중앙대 강사

### 학술서평

#### 『나가사키의 노래 강제징용』/타카다 토쿠에 지음/다보



올해로 우리나라는 광복 65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일제에게 강제징용되어 끌려간 많은 동포는 타국에 묻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태평양전쟁 당시 약 6백만 명의 한민족이 강제징용 되어갔고, 그 가운데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였던 희생자의 상당수는 지금도 떠난 남야 타국에 방치되어 있으며, 우리에게조차 잊혀지고 있는 것이다. 연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유골

은 죽어서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떠돌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평범한 주부이다. 어느날, 이같은 사실이 은폐된다는 사실이 계속된다면, 일본인도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는 생각과,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순수한 기원의 마음으로 위령의 시집을 엮었다고 한다.

이 억울한 영혼들을 잊고 살아가면 서 어찌 우리는 광복절을 기념할 수 있을까. 이 책을 통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 조상의 숭고함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한다.

공유화 기자 gong0930@hansung.ac.kr

#### 『봉선화에 부치는 고백』/히조 눈노 지음/깊은자유



일제강점기 말기 전시체제 일본군 위안소로 연행되어 '위안부'란 이름으로 성폭행 당한 여성들이 있다. 위안부가 된 여성들의 수는 8만에서 20만명이라고 한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간신히 살아남은 여성들도 있으나, 위안부는 일제에 의한 피해자임에도 피해보상을 받기는커녕 사람들의 잘못만 오해와 편견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기도 했다.

위안소에서 당한 폭력은 너무나도 큰 상처와 비극이었기 때문에 50년 이

상을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해서 평생 그 후유증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이 책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일본사람들의 시각을 보여 준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일본의 광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한스런 평생을 보내신 할머니들이 과거의 기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 과거를 외면하지 않아야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유화 기자 gong0930@hansung.ac.kr

# 제2회 동성교내 영어 수필대회



- 대 상 - 한성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포함)
- 주 제 - 자유
- 형 식 - A4 3매 분량 (hwp파일, 글꼴:바탕, 글자크기:10, 줄간격:160%)
- 제출방법 - 참가지원서 : 직접 제출 (영자신문사 사무실)  
원고 : e-mail 제출 (pianaly@hansung.ac.kr)
- 접수기간 - 2010년 9월 20일 ~ 10월 10일까지
- 상 금 - 최우수상-상장 및 상금 30만원 (1명) / 우수상-상장 및 상금 15만원 (2명)
- 문 의 - 한성대학교 영자신문사 사무실 (별관3층) / 02) 760-4195, 편집국장 010-9045-6826
- \* 타 영어수필대회 참가작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 참가지원서 양식은 한성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시상자는 참가자의 수와 작품의 질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주최 : Hansung Today / 후원 : 한성프레스센터

사설

주체적인 삶을 살라

전철을 타면 어떤 날은 쉽게 자리가 나 편하게 앉아서 가고 어떤 날은 짐까지 꼬박 서서 간다. 두 경우의 차이는 전철에 올라타 처음에 자리 잡은 위치 때문에 생긴다. 위치를 잘 잡으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앉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힘들게 서서 가야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노력으로도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고교, 대학 시절 비슷한 성적의 동창들이지만 졸업 후 우연히 택한 직장에 따라 현재의 인생은 판 판이 다르다. 전철에서처럼 선 위치에 따라 같은 노력과 재능으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생의 목표, 적성, 관심분야를 도외시하고 세상의 눈치만 살피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만큼 피곤하고 부질없는 인생도 없다.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는 자신만의 주체적인 삶을 살며 세상에 치이지는 말라는 것이다.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의 흐름을 적절히 이용해 성과를 극대화하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을까?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대만 이야기하자면 경제와 디지털 미디어, 특히 컴퓨터에 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학능력이 한 사람의 지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였다. 그러나 이제는 어학은 물론 경제와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그러한 지표가 되지 오래다. 경제와 컴퓨터에 관한 지식을 쌓고

그로인한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신문, 경제면과 산업, 기술과 관련된 면을 자주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기술과 경제가 세상의 패러다임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 시와 소설을 쓰는 작가들도 디지털 세대의 정서를 읽어내야 하고 E-북의 속성을 이해해야 원활하게 창작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 밖의 분야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신문 연예면만 읽지 말고 경제면과 산업 기술, 특히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면을 자주 접하라 는 것이다.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이 쌓이면 경제지와 컴퓨터 관련 잡지를 정기적으로 읽을 것을 권한다. 이 단계가 지나면 관심 있거나 중요하다고 싶은 기사는 스크랩을 해두기 바란다. 필자도 그렇게 스크랩한 것이 파일로 열 권이 넘는다. 최근에는 인터넷 신문을 자주 읽기 때문에 파일을 스크랩 폴더에 저장해 둔다. 스크랩을 해두었다고 자주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련된 기사를 카피하고 저장하는 행위가 기사내용을 잘 기억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이 기사를 저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판단과정이 기사에 더 집중하게 한다.

인생은 도박이 아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록 내 인생의 불확실성은 낮아진다. 적어도 세상의 수레바퀴에 치일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의화정



정현이 교수 (회화과)

중학교 시절, 정말 학교 가기가 싫었다. 학교에는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공포의 마스게임 연습 시간이 매일 두 시간 씩 있었다. 소녀 가장이었던 내 짝 영미가 지각했다고, 미술 준비물을 안 가져왔다고, 마스게임 동작이 틀려서, 때로는 이유도 없이 또 맞을까봐 나는 늘 조마조마했다. 몇 년 후 영화관에 갔다가 애국가가 끝날 무렵 중학교 시절 내가 참가했던 마스게임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반가운 마음에 주변에 영화관에서 애국가 할 때 나오는 '무궁화 삼천리' 배경 화면이 내가 중학교 때 했던 마스게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모두들 "그래?" 할 뿐 아무도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 무렵,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국어 교과서에서 '청춘! 이는 들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청춘 예찬>이란 수필을 읽었다.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춘'이란 것을 만나고 싶었다.

그 글에는 '이상! 빛나는 귀중한 이상, 그것은 청춘이 누리는 바 특권이다'라는 구절도 있었는데, 혹

청춘예찬

시나 대학에는 가슴 설레는 청춘이, 풀이오르는 피가, 빛나는 이상이, 그리고 드디어 '권리'를 마주할 것만 같은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나는 더 이상 고단 저쪽이 아닌 이쪽에 서 있다. 나는 마치 학생들에게 뭔가 '청춘'을 빛낸 사람이기라도 한 심정으로 고단에 선다. 교실에는 늘 빛줄에 앉아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내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그런 풍경을 전혀 낯설어하지 않는다.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 정말 학교가기가 싫었던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 내기도 하고, 유학 시절 주말 아르바이트 때문에 유독 눈이 감기던 월요일 오전의 슬라이드 강의 시간을 떠올려보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을 엎드려 자게 한다면 그것은 교수의 문제가 아닐까 늘 반성하고 그들을 깨울 수 있을 계획을 꿈꿔 모색한다.

나는 공부에 정말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청춘의 특권 중의 하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벌써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다.

'배움'이란 것의 형태도 많이 변했다. 지식을 가진 선생님이 지식을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 지식을 나누어주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식은 널려있고, 그 지식의 바다 속에서 선생과 학생이 함께 항해를 해야 한다. 아니, 지식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함께 '생산'해내는 것이 되었다. 특히 인문학적인 지식의 성격은 그렇다. 그래서 지식의 전달보다 정보들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고 주입식 강의보다 다중 대화가 더 중요하다.

청춘은 아름다운가? 돌아보면 나의 대학시절은 절대 행복하지는 않았다. '오늘보다 더 슬픈 날은 앞으로는 없을꺼야'라고 생각한 날도 있었고, 그 다음에도 또 더 슬픈 날이 있기도 했다. 공부하기도, 데모하기도, 아르바이트하기도, 짝사랑하기도, 연애하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역시 청춘은 아름답다. 행복해서, 혹은 피가 끓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번민과 갈등, 고봉 때문에 아름답다. 청춘의 그 귀한 시간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고맙고 미안하다.

교직원 인터뷰

학교의 예산과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리더

우리 학교엔 원활한 학교 행정을 위해 힘쓰는 교직원들이있다. 이에 그들을 엿볼 기회가 되는 지면을 구성했다. 이번 호엔 기획협력처내의 장영우(기획전략팀) 팀장을 만났다.

1990년에 우리학교에 입사한 장영우(기획전략팀) 팀장은 올해로 근무 21년차다.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지원팀에 있다가 2학기 조직개편과 동시에 8월 11일자로 기획전략팀으로 왔다. 기획전략팀은 학교의 예산관련업무를 처리하고 학교의 중장기 발전안을 기획한다. 대외 대학평가업무를 준비하고, 우리학교의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수업무도 팀의 일이다. 또한 대학의 모든 정보를 일리는 공식업무를 맡고 있다.

9월 1일자로 오른한 '지식창고'는 기획전략팀에서 기획한 것으로 이에 대해 그는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의 정책기획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한성지식창고'를 기획하게 됐다. 건설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정책이 반영하며, 학교를 발전시키고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학교에서 근무하며 겪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해 말해달라는 요청에 "학생지원팀에 있을 때, 학생들과 국토대장정을 제주도로 간 적이 있다. 그 때 태풍 때문에 밤이 되어 이틀동안 경비도 반으로 줄어가면서 버텼는데, 지나고보면 재미있었던 추억이다"라며 지난 여름방학 때의 일



장영우 팀장 (기획전략팀)

을 이야기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를 묻자 "아이디어는 주로 팀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나온다. 새로운 기획과 기획안을 준비해 정책을 실시하고 시행단계에 들어서 현실화되었을 때 반응을 기다릴 때 조금 긴장되는 순간이었다"며 이와 반대로 "기획과 정책을 세워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고, 구성원이 좋다는 반응을 보일 때는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을 고백했다.

장영우 팀장은 오는 4월 한성학원 65주년, 한성대학교 38주년을 맞아 열리는 기념행사에 대해, "이번 행사는 지식창고를 통해 구성원인 학생들로부터 주요 행사내용과 아이디어를 얻었다. 학생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 같다"며 "법인 65주년은 뜻깊은 해다. 학교의 생일이니까 서로 축하해 주고 앞으로 나아가길 방향을 논의하며, 발전지향적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 학교라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할 좋은 기회"라며 말을 전했다.

공유화 기자 gong0930@hansung.ac.kr

독자투고

행동하는 젊음이 아름답다

전미라 (의대 2)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캠퍼스에도 신선한 바람이 분다.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행사들로 시끄러운 것을 보니 확실히 가을이 왔구나 싶다.

그러나 교내의 소란과는 반대로 학생들의 반응은 시끄럽지 않다. 사실,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기에 그다지 대수로운 것도 없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서글프게도 요즘 대학생들은 학과 공부 뿐 아니라 취업을 위한 다양한 스펙을 쌓아야만 하는 현실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그 중요성을 간파하는 건 아니지만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이다.

확실히 요즘 학생들은 소신이 뚜렷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함에 있어 거침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인 일에만 국한되는 것 같다. 오히려 단체에서는 침묵을 유지한 채 방관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참여의식의 부재(不在). 이를 가장 확실히 느끼는 때는 매년 있는 총학생회장 선거 날이다. 학생들의 입장을 대표할 총 학생회장을 뽑는 중요한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매우 저조하다. 투표율이 절반을 채 넘지 못한 것도 벌써 몇 년 째인 지 모른다. 결국, 학생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보궐선거로 넘어가고 만다.

우리 사회에는 여당과 야당의 싸움터이라는 현 정치판에 질려 정치와 사회에 무심해진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세태는 사회의 축소판인 대학에까지 고스란히 옮겨왔다. 1970-80년대의 뜨거웠던 학생운동의 열기는 더 이상 대학가에서 찾아볼 수 없다. 흔히 '운동권'이라 불리는 일부의 학생들만이 부조리한 사회에 열변을 토할 뿐이다.

그레도 최근에는 현 정부에 맞서 각 학교별 운동권 학생들이 함께 움직여 제법 큰 목소리를 내는 일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모 학교의 총학생회장이 회제로 떠오르는 등 행동하는 젊음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표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가능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유독 우리학교는 참여하고 행동하는 분위기가 침체되어있음을 많이 느낀다. 작게는 학교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문제들부터, 크게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까지.

젊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결코 영원하지는 않다. 젊음을 잃어갈수록 안정에 머무르게 되고, 젊음의 패기와 싱그러움은 점차 시들어간다. 젊음은 지금 우리가 가진 권리이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자. 행동하는 젊음이 아름답다.

한줄댓글

당신이 생각하는 상상력은??

이번 한줄댓글 주제는 우리학교 슬로건이기도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에 대한 자유로운 댓글을 남겨주세요.

임재영 (컴공 2)

☞ 우리에게 한계는 없다!

강호윤 (소속 미기재)

☞ 무엇을 상상하건 현실은 시궁창

이원창 (행정 4)

☞ 무한경쟁시대의 필요요건적 능력

김병근 (법티 1)

☞ 한계의 반대

신미소 (부동산 3)

☞ 실현의 기반, 발전의 기원

'한줄댓글' 관련 게시물은 '나만의 메이리'에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우 여러분의 생각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작성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 수령시 연락할 수 있도록 댓글 뒤에 학과 및 학번을 꼭 기재해 주세요.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42호 당첨자는 신미소(부동산 3)학생입니다.

<표현 능력 상담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2010년도 2학기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목 적 ◎

1. 면대면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3.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함양

상담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2. 상담 기간 : 2010년 9월 13일(월) ~ 2010년 12월 10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논문, 서명 등
4. 신청 방법 :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 메뉴 이용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5. 상담 내용 :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6.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 02-760-4354)

상담 진행 방법

1. 상담 신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2.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현황은 MY P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진행은 상담원과 학생 간에 면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 상담 시간은 학생 1명 기준으로 30분~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5. 상담 신청자 유의사항
  - 1) 상담 신청 시 홈페이지의 신청 항목에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2) 상담 전에 과제 해결에 필요한 참고 서적을 미리 읽어와야 합니다.
  - 3) 상담 시 과제 준비 과정과 준비한 글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취업기획 인터뷰

조인숙(지식정보학부) 인문대학장 인터뷰

인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하지만 세분화된 분야를 뚫어야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은 실용성이 최고의 미학이 된 요즘 시대에 흔한 말이 되었다. 국문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일반기업의 사무를 보는 회사원으로 취직하는 일은 이제 별로 색다른 것도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 학교 인문대학은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증을 안고 조인숙(지식정보학부) 인문대학장의 연구실을 찾았다.

현재 우리 인문대학 학부 졸업생들은 학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글에 관련된 일, 가르치는 일에 많이 종사하는 편이다. 역사문화학부의 경우 미디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콘텐츠 작가는 직업이 갖기도 한다. 조인숙 학장은 "인문대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본으로 가지고 다른 분야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분야에서 일하는 졸업생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취업 이후에도 좀 더 전문적인 공부나 필요한 분야도 많다. 특히 지식정보학부의 경우 어느 도서관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패션 관련 협회 도서관에 근무하면 패션 트렌드에 관련한 잡지와 동영상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는 것이다. 조인숙 학장은 "앞으로의 사회는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그 종류도 세분화된다"며 이에 따른 정보 관리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분화된 지식에 맞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취업이 대학의 해결 과제인 현실에 대해 조인숙 학장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예전엔 3학년 2학기 지나서야 슬슬 취업을 준비했는데 지금은 입학하자마자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대학의 문화를 즐기는 소위 '캠퍼스의 낭만'은 옛 이야기가 된 것 같아 아쉽다"면서도 "그래도 사회적 상황에 따른 현실적인 대비책도 중요하다. 인문대 내에서도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인문대에선 자대 학생들을 위해 취업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취업 캠프를 계획 중이다. 조인숙 학장은 "자아분석부터 이력서 작성과 면접 노하우까지 알려주는 실용적인 취업캠프가 많아 관심을 갖고

있다. 관심있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진행해 본 뒤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전공 살려 나도 즐겁고 도서관 이용자도 즐겁고"

봉재운(문정 99) 졸업생



올해 7급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이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평균 115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모집인원이 줄었음에도 경쟁률이 크게 오른 것은 구직자의 공직 선호도가 꾸준한 데다 응시인원 연령이 폐지되고 고령 지원자가 늘었기 때문이라 한다. '하늘의 별따기'란 말은 여기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한다. 자신의 능력을 잘 살려, 하늘의 별을 한번에 얻은 봉재운(문정 99·현 지식정보)졸업생을 만났다.

2006년 경기도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그는 그해 9월 임용 되어 작년 9월까지 도서관 전반의 사서업무에 보다가 현재 남양주 시청 제2청사에서 도서관운영지원팀으로 발령되어 주무관 직책을 맡고 있다. 8급 공무원으로써, 도서관의 업무를 기획하고 관내 도서관관립 및 운영 지원 등 예산 수립과 집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 하게 된 계기가 있냐는 질문엔 "그는 4학년 재학시 학업과 병행하여 어머니와 함께 자영업을 했었다. 1

년을 거의 일만 하다 보니 사실 학업은 거의 신경을 못썼었는데, 실제로 사회생활을 해보니 역시 공부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우연히 공무원시험 공지를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목표로 잡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말 그대로 주경야독하며 시험을 준비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향수로 5년차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공무원의 장점에 대해 "일단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과, 일반 직장과는 다르게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신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며 "일이 바쁘기는 하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낀다"고 소개했다.

봉재운 졸업생은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 사서직은 일반 행정직과는 다르게 전공직이기 때문에, 전공을 살려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기회이고 일하면서 자부심도 많이 가진다"고 말을 전했다. 그는 올해 자신의 전공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한국외대 대학원을 기록관리학 석사로 졸업하기도 했다.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그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하다 보면 취업의 문은 그리 굳게 닫혀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라며 "꾸준한 자기분야의 개발이 합격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조언했다.

공유하 기자 gong030@hansung.ac.kr

목표만 바라보는 절실함이 가져다준 '합격'

조종우(무역 02) 졸업생



과감한 도전과 절실한 노력이 어우러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 관세사로 근무하는 조종우(무역 02) 졸업생이 그 좋은 예다.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관세사'란 직업은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수출입 절차를 대신 밟아주며 관련된 각종 세율 부과, 통관신고 등의 일을 이행하는 통관대리인이다. 모든 수입품은 국경을 넘기 전 맨 처음으로 관세사의 손길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무역학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한번쯤 육살내를 만한 매력적인 직업이다.

그는 "학생 때 대리출석을 맡기고 친구들과 술·탕구·PC방도 즐기며 놀았다. 실컷 놀다가 공부를 시작하니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힘들었다. 엉덩이에 장기가 날 정도였다"며 공부를 시작했을 때 어려움을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또래보다 대학에 늦게 입학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데다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인 관세사를 생각하고 싶어 관세사를 목표로 삼았다. 실패는 생각 않고 절실히 공부하게 되었다. 목표를 정하면 그걸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매달리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시험 합격 비결은 절실함 뿐 아니라 결심한 즉시 실행에 옮기는 행동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시험이 어려워 보

서, 시험에 떨어지면 이도저도 안 될까봐 등의 이유로 겁을 먹으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그는 "무슨 일이든 직접 준비해보기 전엔 알 수 없다"며 일단 부딪혀 몸으로 느껴볼 것을 권했다.

그는 다양한 물건·사람들을 접하는 직업이니 일이 늘 새롭고 즐겁다는 점을 자신의 일의 장점이라고 꼽았다. 남몰래일이 얼마 남지 않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거래처의 급전적 손실을 막는데 기여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거래처와의 상담이 업무의 주요 부분"이라고 말하며 "즐거워 활동적인 사람이라면 이 일과 잘 맞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세사의 수요가 많아 학벌보다 실력으로 평가 받는다는 점도 장점이기도 하다. 그는 "합격하고 일한지 1년째 되었는데 그 동안 학벌로 인한 애로 사항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이 분야에 동문이 많이 없어 아쉽다. 후배들이 관세사 시험에 도전한다면 선배로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머릿 속 온통 디자인 一色, 삼성의 문턱을 넘어서

신봉건 (제품디자인 03) 졸업생



7년 전, 무(無)에서 유(有)가 되는 디자인의 매력에 이끌려 호캠프경영학을 그만두고 우리학교 제품디자인과로 입학한 학생이 있었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디자인그룹에서 TV 디자인을 맡고 있는 신봉건 (제품디자인 03) 졸업생이다. 디자인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미처 측면만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총체적 창조작업이라는 매력에 이끌렸다"고 말하는 그는 "학생시절 삼성디자인멤버십에 활동을 한 것이 결국 삼성전자 채용에 가산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취업비결을 "다양한 공모전 경험과 외부경험, 노력에 대한 자신감과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라고 꼽는다. 그는 재학시절에 "입학 당시 제품디자인학과는 타 상위권 대학에 비해 인지도가 낮았다. 하지만 열정으로 학교 이름을 알려 인지도를 넓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중 우연히 삼성디자인멤버십 공고고를 보고 지원한 것이 큰 기회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디자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노는 시간이 아까웠다는 그는 '소비가 얼마나

만족할 것인가?' "나보다는 타인의 시선에서 생각을 하다보면 소중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비법을 전했다.

신봉건 졸업생은 현재의 대학생활에 "당시는 외부활동으로 인해 외국학과 교류를 하는 일이 많아 영어가 절실했다. 목적이 없이 단순히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영어공부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며 "교양 영어수업을 통해 회화능력을 기르거나 전공수업의 과제를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등 학교수업을 100%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외부에서 보기에 학교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면 나의 가치는 외부활동 경험을 통해서 높이는 것도 좋다.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생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더 뛰어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라"고 덧붙였다.

신봉건 졸업생은 현재의 자신의 일에 대해 "대기업에서는 모험보다 안정적인 것을 선호해 디자이너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디자인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만든 디자인이 더 많은 대중들에게 소비되기를 원한다면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디자인이 하나의 예술적 가치와 국가경쟁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날이 와 디자인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웃음을 지었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실무경험을 쌓는 것이 취업문을 뚫는 비결

이승주(기계 01) 졸업생



요즘 대학생들은 방학을 즐기는 방법부터가 다르다? 놀고먹고나 한 세월 보낸다는 한량 대학생은 옛날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아르바이트부터 공모전, 국내의 여행까지... 방학을 맞은 대학생은 바쁘다. 이처럼 방학 때 여행을 떠나거나 관련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승주 졸업생(기계 01)은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입사 전 마지막 연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것이 여행의 매력"이라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공채로 지원해 서류, 포트폴리오 발표, 면접을 다 통과해 연수과정을 밟는 그는 입사가 확정된 상태이다.

이승주 졸업생은 자신의 취업비결을 "많은 시행착오와 다양한 경험에 대한 진솔한 자기소개서 덕분"이라고 말한다. 방학을 활용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되고 어려움도 다 넘어오는 등 자유로운 활동을 많이 했다는 그는 재학시절엔 전공스터디를 만들어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즐겁게 공부했다. 휴학 전 전공관련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경험을 중요시 했기 때문일까. 그는 "스펙은 제대로 챙겨놓지 않아 조금 늦은 준비였다"며 "다가오는 영의 압박에 조금 미루어 놓았더니 큰 집이 되어 더욱 버겁게 느껴 힘들었다"고 자신의 시행착오를 회상했다.

그는 현재의 대학생활에 "먼저 다른 세계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고 만약 그 끝에 원하는 것을 만났다면 전공을 바꾸는 대담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펙은 남보다 좀 더 일찍 준비한 후 희망하는 진로 관련 아르바이트의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과 차별화된 진로관련 아르바이트로 이력서를 채운다면 준비된 인재라는 인상을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승주 졸업생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항상 인터넷을 세워두고 취업계의 동향을 파악,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한다"며 "인문학적 지식이 취약한 공학계열은 책과 신문을 읽으며 사회적 이슈를 확인한다면 이러한 지식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언젠간 해외로 나가고 해외취업과 일해보고 싶다. 한국의 빈도체 정비설비는 해외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의 빈도체가 자리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기자수첩

개인주의의 끝은 어디일까



얼마 전 기지는 수업 중 '나는 편의점에 간다' (김애란)는 단편 소설을 접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서울 한복판에서 홀로 자취를 하고 있는 여주인공이 자신의 집 근처의 세계의 편의점에 들르면서 생활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주인공은 슬픈처럼 편의점을 들린다. '외롭고 허전한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24시간 판매한다'는 점과 더불어 그녀가 편의점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편의점의 무관심' 때문이다.

그녀는 애인지 자신을 신경쓰는 것 자체가 불편해 편의점의 알바생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물어올 때마다 발길을 끊는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 가는 편의점은 당선이 누구인지, 무엇을 사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당신 옆의 한 여자가 편의점에서 물을 살 때, 그것은 약을 먹기 위함인지, 당신 뒤의 남자가 편의점에서 면도날을 살 때, 그것은 손을 긁기 위함인지 제대로 묻지 않는다'는 책 본문의 내용은 개인주의의 극단적인 사례를 꼬집고 있다.

는 사례는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며 책임부터 회피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타인에게 사박해진 것일까? 어쩌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가시적인 행동보다 무관심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이러한 무관심은 입김을 꺼올까? 만든다. 얼마 전 기지공부가 쏟아질 때 한 장애인 여성이 빗길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휠체어를 굴릴 때 우산을 쓴 주위의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쳐갔다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속속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을 줄어든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개인주의의 끝은 그 누구의 내면으로 소용돌이 치지 못해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외롭고 비극적인 사회일 것이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주간식단표

2010년 10월 4일(월요일) ~ 10월 8일(금요일)

날짜	월 10/4	화 10/5	수 10/6	목 10/7	금 10/8
헌식	*개교기념일행사* 종합실미역국 제육볶음 만두탕수 집채 골뱅김치	부대찌개 쌀밥 계란말이 무말랭이무침 진멸치볶음	동태찌개 쌀밥 사각오징어볶음 두부조림 숙주나물무침	돌솥제육비빔밥 (국내산) 미소장국 해초무침 김치볶음 요리쿠르트	사골민국국 쌀밥 미역줄기볶음 콩나물무침 오징어젓갈
양식	오므라이스 & 포크세시테트 계란국 짜시이채무침 피크닉	돈까스(국내산)&스 피케티 양송이크림소스 클링클렛 후르츠리테일	케첩달걀 미역미소장국 아채고로켓 피클	우물고기달걀밥 유부장국 파인애플샐러드 계란토스트	
카페 테리아		단호박샐러드	아채도피어	고구마맛탕	뽕이맛도그

\* 위 식단은 식재 공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희 학생 식당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국내산 / 쇠고기: 호주산 / 닭정육: 미국산(닭갈비용)을 사용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가로
- \* 세로
- ① 매년 개교일과 같은 날짜에 맞추어 개교를 기념하는 날
- ②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계획에 해당하는 길으로 전북 정수군에서 발원해 충청남북도를 거쳐 군산만으로 흘러드는 강
- ③ 필요 이상의 지방 성분이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염증을 일으켜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키는 질병
- ④ 중국의 수도 북경
- ⑤ 쓰는 대로 달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
- ⑥ 운동 경기에서 공이 땅을 칠 때 속력을 내기 위하여 손목을 재빨리 안쪽으로 꺾으면서 던지는 일
- ⑦ 17~18세기 프랑스 남부에서 유행한 2박자의 경쾌한 춤곡
- ⑧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예능프로그램 '남자의 O.O'
- ⑨ 우리학교 홍보 슬로건
- ⑩ 죄인에게 매질을 할 때 형리를 감시하면서 날일이 삼피에 찜시 치게 하던 일
- ⑪ 증가가 되는 물건
- ⑫ 베네치아의 영어 이름, 세익스피어가 지은 희곡 제목에 이 말이 들어감
- ⑬ 이번호 학술면 주제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 부리던 일
- ⑭ 아내에게 놀려 지내는 남편
- ⑮ 18세기 고전파 음악의 대표가는 작곡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만들
- ⑯ 신문, 잡지, 방송에 실을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
- ⑰ 자각이나 통급, 지위 따위의 격이 높아짐
- ⑱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 김철식 총리가 청문회에서 이것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함

\* 정답지 발표  
이상철 (한국어문 1) 010-xxxx-7601  
김수지 (지정 4) 010-xxxx-5018  
남보라 (멀티 3) 010-xxxx-4823

학과(학년) : 연락처 : 연락처

# 인사담당자 48%, 옷차림이 나빠 탈락시킨적 있어

## 나를 어필하는 또다른 방법, 이미지 메이킹



### 첫인상, 면접 시 많은 비중 차지해

최근 잡코리아가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절반이 훨씬 넘는 81.0%가 직원 채용 시 지원자 인상을 채용 기준의 하나로 고려한다고 답했다. 면접의 내용과 스펙은 물론 외모 또한 취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현재 취업의 문은 날로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첫인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는 '이미지메이킹' 전략이 필요하다.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길어야 3초 남짓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나.

자신의 인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말투와 표정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여지는 외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헤어와 메이크업을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이 성공적인 면접으로 이끌 수 있을까, 여기 면접을 성공적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팁이 있다.

윤현정(정연아 이미지테크) 담당자는 "면접에서 시각적 이미지는 거의 80%를 차지한다. 처음에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좋지 않은 반응을 받을 수 있다"며 첫인상에 승부를 걸라고 말한다. 또한 면접메이크업의 팁에 대해 "질은 화장은 금물이다. 한 듯 안한 듯 자

연스럽게 하되 자신의 단점을 감추고, 장점은 강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피부의 결점을 감추기 위한 관리는 필수로, 깔끔하고 밝은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말을 전했다. 면접관에게 성실함과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뚜렷하게 이목구비를 살려 당당한 느낌을 줘보자.

머리모양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느낌이나, 표정이 달라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헤어 또한 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성용 머리를 무거나 단발정도의 길이로 단정함과 깔끔함이 중요한 포인트다. 앞머리는 되도록 없애거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남성은 유행하는 머리보다는 저저분하지 않게 깔끔하게 다듬는 것이 좋다. 스포츠형 머리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스피크에 이어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경쟁력이겠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업무와 직종에서 요구하는 헤어와 메이크업은 면접 시 첫 인상과 태도에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앞서 말한 팁을 사용해 면접관들에게 눈도장을 꼭 찍어보자. 자신감 있는 태도와 아름다운 미소는 필수다.

공유화 기자 gong030@hansung.ac.kr

### 면접은 자신을 평가받는 자리, 옷차림으로 성실한 이미지 어필

사람의 첫인상은 옷차림과 외모에서 결정된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외면적인 아름다움은 차림새를 보면 한 눈에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옷차림, 외모가 어느 정도 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레오나르도 비켄은 공중전화 동전 반환구에 미리 동전을 넣어 둔 후 누군가 전화 부스에 들어가 통화를 시작하면 실험 보조자들이 다가가 두고 간 동전을 받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로 넥타이를 맨 깔끔한 정장차림의 실험자가 70% 이상 동전을 돌려받고, 도시락 가방을 든 허름한 차림의 실험자 중 38%만이 동전을 돌려받았다.

이러한 외모의 중요성은 취업에서 특히나 부각된다. 이는 인사담당자 48%가 옷차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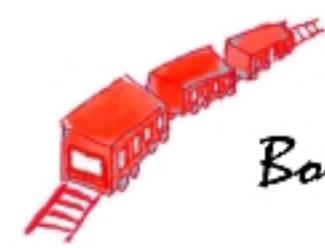
나빠 탈락시킨 적이 있다고 하는 조사결과에서 보여준다.

윤성은(인쿠르트 홍보팀)씨는 "면접은 자신을 평가받는 자리이므로 기본을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라며 "옷차림은 얼얼한 면접에 정성을 들이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패션은 흔히 자신의 성향이나 개성을 띠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면접'이라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개성'보다는 면접관에게 '참여한다는 자세', '성실한 이미지'를 어필하는 것이 필수이다. 잘 모르겠다면 미리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어떤 이미지를 선호하는지 관계자에게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깔끔한 옷차림에 대해 그는 "남성은 기본 정장, 가장 정형화된 옷차림이 좋고 여성의 경우는 유행택 정장에 헤어와 메이크업에 신경 써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면접'을 통과하고 입사하게 되면 옷차림은 직종에 영향을 받아 '일하기 위한 옷차림'으로써 각기 다른 스타일을 추구하게 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이미지의 금슬은 무난한 옷차림, 대외적인 영업직의 경우는 활동적인 수트, 홍보와 마케팅분야는 활동적인 수트나 단정한 캐주얼의 옷차림이 적합하다.

이연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Bon voyage~

### 빨간 등대 전망대를 품은 아름다운 제부도



가을 바다의 낭만을 즐기고 추억을 만들기에 좋은 섬이 경기도 화성시의 제부도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도 좋아서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다. 수원역에서 제부도로 가는 버스가 수시로 운행된다.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와 제부도를 이어주는 바닷길은 길이가 약 2.3km로 썰물 때면 물에 잠겼던 길이 드러나 한국판 모세의 기적 현장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과거에는 바닷물이 차면 제부도 사람들은 허벅지까지 잠기는 것을 감수하면서 바닷길을 건너야 했다. 그러다가 1980년 대 말 시멘트 포장 도로가 생기면서 차량들의 왕래가 수월해졌고 때마침 마이카 붐이 일면서 제부도는 수도권 시민들의 주말 드라이브 코스 1번지로 부상했다. 제부도를 향해 바닷길을 지나는 도중 북쪽으로 등대전망대를 품은 누에섬이 보인다.

일단 제부도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난 바닷가길을 따라 제부도선착장으로 가서 빨간 등대와 인사를 나눈다. 제부도항과제부도는 4초마다 한 번씩 불을 밝히 선박들의 안전 운항을 도와준다. 등대의 불빛은 12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보인다. 등대에 기대어 가끔씩 갈매기와 눈맞춤을 하면서 시집 한 권 읽는 여행자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등대 옆으로 난 길이 77m의 해상 잔교를 걸어 바다낚시터 끝까지 가서 바닷바람을 맞아보는 것이 순서이다. 가을의 바닷바람은 여름과 달리 습하지 않고 상쾌하다.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면 도시의 공해에 시달린 폐가 생생한 기운을 얻을 것만 같다. 선착장에는 조개구이와 회를 파는 간이집들이 즐비하였다. 조개 굽는 냄새가 여행자의 식욕을 자극한다.

경기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착장에서 바다를 따라 조성된 해안산책로

를 걷는다. 바닷가에 절벽을 따라 목재데크로 길이 만들어졌다. 중간에 소라껍데기 형상의 조형물과 망원경이 설치된 포토존이 있어서 제부도 여행을 기념하는 사진 한 장을 남기기에 좋다. 해안산책로는 제부도해수욕장의 북쪽 끄트머리로 이어진다. 걷는 도중 바다로 시선을 두면 전곡항에서 출발한 하얀 요트며 제부도항을 드나드는 고기잡이배들이 툄살을 가르며 질주하는 시원한 모습을 감상하게 된다.

목재 데크 길을 다 걸은 후에는 제부도해수욕장으로 내려가서 모래사장을 따라 걸어본다. 서쪽을 향한 제부도 해변은 지난 여름 사람이하기를 다 풀어내지 못한 연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고백장소이다. 밀물이 들어오면 깨끗이 지워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연인들은 조개껍데기나 조약돌 하나를 주워 모래 사장에 이렇게 쓴다. '너를 사랑해.'

제부도해변 남단에는 매바위가 우뚝 서있다. 바위 꼭대기에 매가 서식한다고 해서 매바위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 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여행자가 서 있는 장소와 각도에 따라 먹이를 노리는 매, 하늘을 비상하는 매 등으로 보인다. 제부도 여행의 단 하나 단점은 갯벌에 만들어진 진입로가 밀물 때면 물에 잠겨 6시간 정도 통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부도로 여행을 가려면 통행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추천할만한 주변 숙소는 제부도 초입 살곶이마을에 들어선 산토리니펜션이다. 그리스 산토리니섬의 정경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이 펜션에서는 제부도 뒤로 넘어가는 환상적인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여행정보) 화성시청 관광해당과 031-369-2861 산토리니펜션 www.ehappyhouse.com 유엔대(여행작가) / '대한민국 여행사' 지사

### Talk/Talk! cinema '낮술'

## 낮술 권하는 영화?



영화 '비포 선라이즈'가 개봉했을 때, 할기 총명한 전 세계 청년 남녀들이 앞 다퉈서 기차를 잡아탔다고 한다. 행여나 여행길에서 제시예단 호크와 셀렌느(줄리 델피)가 그랬듯, 마음 설레게 하는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기차 혹은 버스에서 함께 앉게 된 여자(혹은 남자가) 추녀일수도 있고, 마음에 들었는데 알고 보니 꽃병이였을 수도 있고, 하필이

면 번째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할려면, 아서라. 여기, '낮술'의 혁신이 있으니 말이다. '낮술'은 북이 없는데, 운까지 지지리 없는 한 남자의 로드무비다.

처음 '낮술'과 마주하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른다. '화면이 왜 이리 구려?' 100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조영 없이 촬영을 감행한 감독의 눈물겨운 사연 때문이다. 감독은 조영 뿐 아니라 연출, 각본, 촬영, 제작, 미술, 음악, 편집, 목소리 연기 등 1인 8역을 해 내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성'한 영상'의 단점들을 재치 넘치는 언어유희와 골 때리는 유머들로 서서히 지우기 시작한다. 실연에 아파하는 혁신(송삼동)을 위해 친구들은 정선으로 떠나자고 제안한다. 여행이 내키지 않는 혁신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만,

널 위해 가려는 건데 빠지면 어쩌냐는 친구들의 타박에 결국 회유를 당한다. 그런데, 아라?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목에 핏대 세우며 여행을 외쳤던 친구들은 누구 하나 코빼기도 안 보인다. 믿은 혁신이 잘못인지, 뭔가 예감이 안 좋다. 그렇게 시작된 혁신의 홀로 여행은 이내 악몽으로 변한다.

저술바다에서 소주 한잔과 커피라면을 먹으면 운치 있다는 말을 따랐다가 추위에 오지게 떨고, 술 한 잔 사달라는 꽃병의 품에 넘어가 한 겨울에 팬티 바람으로 버려지는 낯 뜨거운 상황에 내몰린다. 이것만이면 다행이지, 버스 옆자리에 앉은 추녀에게 무관심했다가 'X새끼'라는 소리를 들은 혁신은 산길에서 자신을 구해준 트럭 아저씨가 알고 보니 게이더라, 라는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나온 황당한 상황들과 연타석으로 마주한다.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도, 예쁜 여자가 나타나자 희망

의 끈을 슬그머니 다시 펼치니, 이를 어찌할꼬 혁신은 타오르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수컷인 것을. 이처럼 영화는 술과 여자 때문에 생긴 남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련을 못 버리는 모습을 통해, 때론 무모해지고 마는 남성들의 찌질한 욕망을 통쾌하게 꼬집어 낸다.

시종일관 유쾌한 웃음과 안기는 '낮술'의 성취는 작품 구석구석에서 발견된다. 독립영화는 딱딱하다는 선입견을 털어냈다는 점, 신인 감독이 빠지기 쉬운 자의식 과잉의 유혹에 현혹당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현실에 발을 디딘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들 잘난 척 하지 않고 풀어냈다는 점이 그것이다. 덕분에 115분 동안 이어지는 '낮술'의 여행은 첫 잔부터 마지막 잔까지 입 안 가득 오랜 여흥을 안긴다. 이 영화, 그러니까 낮술 권하는 영화다.

정시우 (무비토크 기자)

### 사진이야기



'정춘', 2010 삼성전자 하계인턴십 연수 중에 단합을 위해 체육관에 모두 모여 팀 구호도 만들고 단체 액션게임을 통해 팀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던 잠깐 쉬고있는 모습입니다.

정진영 (정통 4)